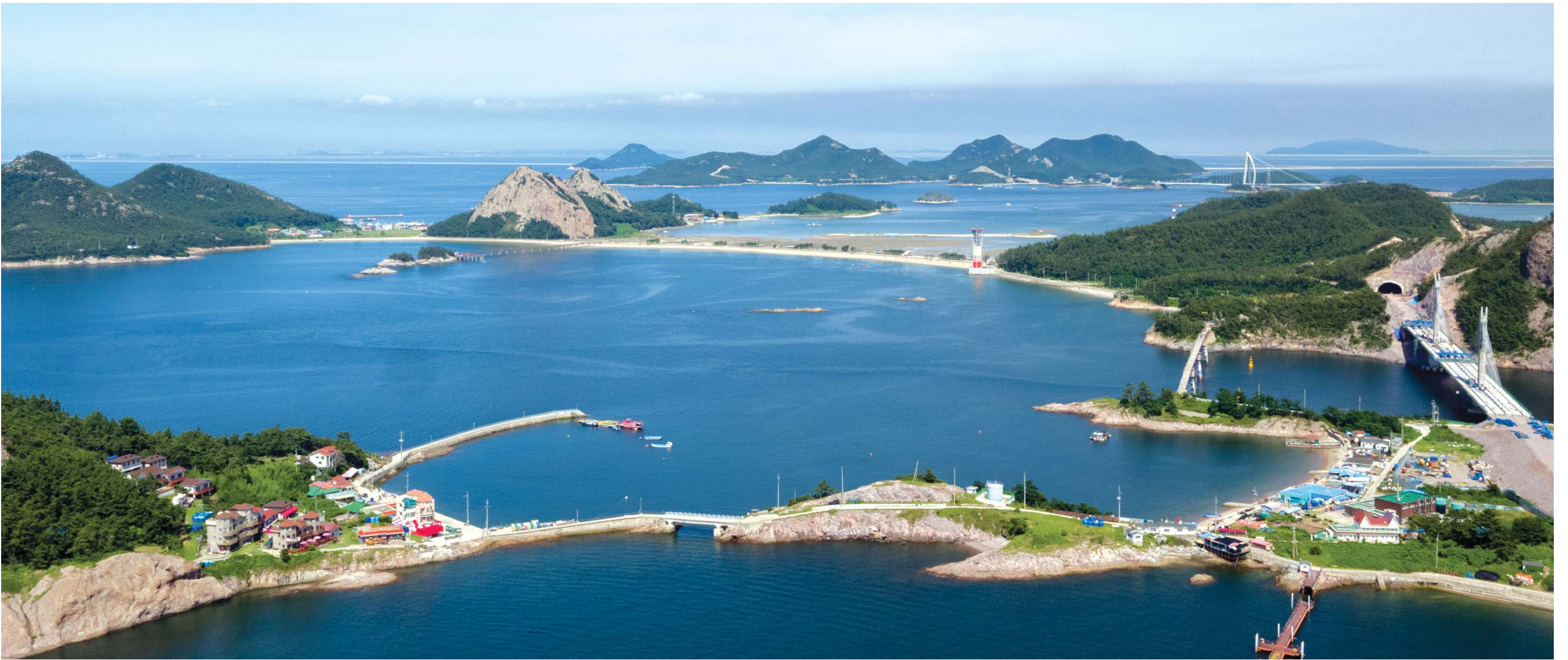




선유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군산군도가 한 폭의 그림처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군산시 제공〉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에서 신선처럼 놀아볼까”

군산

고군산군도

10개 유인도·47개 무인도 ‘섬 군락’
수려한 경관·천혜의 해상관광공원
교통 수월 관광객 위한 2층 버스도 운영

‘선유낙조’ 황홀... 명사십리 6월25일 개장
짜릿함 즐기고 싶다면 ‘선유 스카이라인’
무녀도~장자도 9.28km 하이킹코스 ‘인기’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충북신문 부산일보 金北日報 제주新보

新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고군산군도, 이렇게 즐기면 ‘꿀잼’

▲해상 관광: 고군산군도는 6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형제처럼 펼쳐져 있으며 각각 아름답고 기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천혜의 비경이라는 이곳은 이색적인 풍경마저 자아낸다. 선유도에 서 유람선과 요트 투어를 즐길 수 있다.

▲선상·갯바위 낚시: 어장 자원이 풍부해 우럭과 놀래미 등을 잡을 수 있다. 주변에 섬이 많아 파도를 막아서 호수에서 배 낚시 하는 기분이다. 또한 배를 타지 않아도 낚시할 공간이 많아 갯바

고군산군도는 전북 군산 앞바다에 떠 있는 10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의 군락이며,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신선이 노닐던’ 선유도를 중심으로 신시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는 새만금 방조제와 이어진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으로 요즘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다.

‘바다가 육지라면’의 노랫말이 현실로 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군산·동군산 IC·새만금 방조제·고군산군도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국도 21번)~새만금 방조제·고군산군도 등 교통편이 한결 수월해졌고, 관광객을 위한 2층 버스도 운영 중이다.

고군산군도에는 선유도의 망주봉과 명사십리, 장자도의 사자바위와 할미바위 등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들이 즐비하다. 이곳의 매력은 이 뿐만이 아니다. 등산 및 하이킹·캠핑·바다낚시·갯벌체험·공중하강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즐거거리로 가득 차 최고의 해상관광을 즐길 수 있다. 어김없이 찾아온 더위, 올해는 아름다운 고군산군도에서 신선처럼 놀고 즐기며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신선들도 반한 ‘선유팔경’

신선들이 괜히 선유도를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을까. 이곳의 최고의 강점은 바로 수려한 절경이다. 특히 예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 선유팔경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선유팔경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선유낙조’는 해질 무렵 어디에서 보아도 황홀하다. 서해바다 한가운데 접점이 떠 있는 조그만 섬과 섬 사이의 수평선으로 헤가질 때 선유도의 하늘과 바다는 온통 붉은 빛으로 감돌며 황홀하고 장엄하기까지 한 광경을 연출한다.

이와 함께 명사십리 백사장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고와 맨발로 모래사장 위를 뛰어다녀도 아프지 않다. 한 밤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고운 모래사장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이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밤이 될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선유도의 명사

십리 해수욕장은 6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할 예정이다.

명사십리에서 남동쪽 방향에는 선유도를 대표하는 돌산인 망주봉이 보인다. 바위로만 이루어진 봉우리인 망주봉은 여름철 큰비가 내리면 암벽을 타고 예닐곱 가닥으로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져 평소에는 숨기고 있던 선유팔경의 하나, 망주폭포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무녀도의 3개 무인도 사이로 고깃배가 돌아오는 ‘삼도귀방’, 장자도 밤바다의 고깃배 불빛을 일컫는 ‘장자어화’, 고군산군도의 12개 봉우리가 춤을 추는 것 같다는 ‘무산 12봉’, 신시도의 월영봉을 오색으로 물들이는 ‘월영단풍’, 기러기가 내려앉은 듯한 형상의 모래톱인 ‘평사낙안’까지 선유팔경은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를 자랑한다.

▲자전거 하이킹: 선유도는 장자도·무녀도 등 주변 섬과 다리로 연결돼 있어 자전거로 하이킹하는 데에는 최고다. 무엇보다 연인 및 가족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선유봉 및 대각산 등반: 선유도에서 제일 높은 선유봉은 정상까지 30분이면 오를 수 있다. 또한 대각산은 신시도에 있으며 말이 필요 없는 경관을 자랑한다.

▲해수욕: 섬에 왔으면 해수욕은 기본.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몽돌, 옥돌 해수욕장은 무더위를 날리기에 안성맞춤이다. ▲수상레저: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튜브타기,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등 다채로운 레저를 즐길 수 있다. /전북일보=이환규 기자

◇자전거 하이킹·구불길 트래킹

선유도와 그 이웃 섬들은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참 좋다. 면적이 넓지 않고 가파른 오르막길도 없어 가히 하이킹의 천국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자전거 대여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작은 다리를 통해 선유도와 연결된 장자도, 무녀도, 신시도 등의 구석구석까지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선유도에서 무녀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9.28km의 하이킹 코스는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자전거 하이킹과 도보 트래킹을 즐길 수 있는 구불길인 ‘고군산길’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건강하게 감상할 수 있다. 섬과 섬 사이를 지나면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은 섬만이 주는 선물이다. /전북일보=이환규 기자

◇자전거 하이킹·구불길 트래킹

선유도와 그 이웃 섬들은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참 좋다. 면적이 넓지 않고 가파른 오르막길도 없어 가히 하이킹의 천국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자전거 대여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작은 다리를 통해 선유도와 연결된 장자도, 무녀도, 신시도 등의 구석구석까지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선유도에서 무녀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9.28km의 하이킹 코스는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자전거 하이킹과 도보 트래킹을 즐길 수 있는 구불길인 ‘고군산길’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건강하게 감상할 수 있다. 섬과 섬 사이를 지나면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은 섬만이 주는 선물이다. /전북일보=이환규 기자

◇자전거 하이킹·구불길 트래킹

선유도와 그 이웃 섬들은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참 좋다. 면적이 넓지 않고 가파른 오르막길도 없어 가히 하이킹의 천국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자전거 대여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작은 다리를 통해 선유도와 연결된 장자도, 무녀도, 신시도 등의 구석구석까지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선유도에서 무녀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9.28km의 하이킹 코스는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부터 최고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자전거 하이킹과 도보 트래킹을 즐길 수 있는 구불길인 ‘고군산길’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건강하게 감상할 수 있다. 섬과 섬 사이를 지나면서 만날 수 있는 풍경은 섬만이 주는 선물이다. /전북일보=이환규 기자



선유도와 주변 섬들은 자전거 타기에 안성맞춤이다.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